

종단소식

조계종

직지사 천일기도법회

김천 직지사(회주 녹원)는 26일 오전 10시 천불전에서 제 39회 천불참회 및 천일기도 대법회를 봉행한다.

중앙장학회 전통 다기전

중앙장학회(총재 현근 사진·회장 원학스님)는 5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전통 다기 전시회 및 하루차림(11일 산중다원)행사를 갖는다.

태고종

선암사 새주지 지암스님

지난 3월 태고총림 수호를 결의했던 순천 선암사는 14일 경내 심검당에서 전산대회를 개최하고 지암스님(광주 세심정사 주지)을 새 주지로 선출했다.

지암스님은 주지로 선출된 직후 '선암사가 더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계종과의 관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내외의 불신과 갈등을 모두 포용, 화합의 장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산대회에는 93명의 재직승중 73명이 참석했으며, 지암스님과 해운스님(선암사 재직)이 새 주지 후보로 나섰다.

충남종무원장 대연스님

충남종무원장은 23일 아산 영원사에서 대연스님 종무원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대연스님은 인사말에서 '원만한 종무원장과 종무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지종

통리원 춘기 강공회

통리원(원장 범공)은 23일부터 26일까지 3박4일간 총지사를

본지 20명 증원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총무원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02)737-0698

에서 전국 70여명의 정사·정수를 대상으로 '춘기 강공회'를 개최한다.

매년 봄, 가을 두차례 열리는 강공회에서는 경전 및 종단 중흥에 대한 경의와 시대에 걸맞는 포교방법 등이 폭넓게 논의된다.

지인사 신축 헌공불사

인천 지인사(주교 청암)는 22일 신축헌공불사를 봉행했다. 이번 새로 지어진 지인사는 3백90평 규모의 2층 건물로 전통사찰과 현대식 건물의 조화를 고려해 지어졌다.

원효종

청송교도소 수계법회

총무원(원장 무진)은 16일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 위문법회 및 수계식을 봉행했다. 이날 수계식에서는 모두 20여명의 재소자가 계를 받았으며, 이어 다과회 및 위문품 전달식을 가졌다.

총화종

은선사 아미타불 기공

남양주시 은선사 주지 화담스님은 18일 강원 춘천에 건립 중인 은선사에서 동양 최대 아미타불 기공식을 봉행했다. 아미타 12층 높이는 36m 크기로 지어질 아미타불은 99년 완공되며, 완공될 경우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게 된다.

한편 이 아미타불이 들어설 춘천 은선사는 지난 96년 연건평 6백여평 규모의 대웅전 공사에 착공해 진행 중에 있으며, 법당에 3천불을 조성할 예정이다.

일불선교종

법왕사 진신사리 안치

경남 울산 법왕사(주지 명산스님)는 10일 미안마 국립박물관으로부터 부처님 진신사리 4과를 기증 받고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진신사리를 직접 모셔온 미안마 국립박물관장 김기태 사님의 기증식 및 친견법회와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법왕사는 지난 89년 참건된 사찰로 현재 불사건립이 진행 중이며, 이날 기증받은 진신사리는 사리탑을 건립해 봉안할 예정이다.

인터넷 신흥종교사이트 '붓물'

3월26일 미국 '천국의 문' 신도 39명의 집단자살극은 최첨단 통신매체인 인터넷과 연관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을 인터넷상의 종교사이트로 끌어들였다.

인터넷의 대표적인 검색사이트 야후에서 검색할 수 있는 종교 사이트는 1만여개. 이중 불교·기독교·힌두교 관련 사이트가 주목을 이룬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전한다. 종교사이트가 증가한 것은 인터넷이 제공하는 홈페이지·전자우편·대화방 등의 기능이 신앙체험·전교·교육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신흥종교 성향의 불교관련 사이트는 유니테리언 연합(http://uaa.org/)이 준비하고 있는 MSN(美 통신사)은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기괴여령의 재소자가 계를 받았으며, 이어 다과회 및 위문품 전달식을 가졌다.



월정사 박물관 착공 월정사(주지 현해)는 11일 경내에서 성보박물관 착공식을 가졌다. 연건평 2백8평, 지상1층 지하1층 규모의 박물관은 11월 완공 예정이다.

통도사 대응전 기동 부식

통풍 잘안돼...문화재관리국 보수중 발견

국보 제290호 양산 통도사 대응전 기동이 부식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대응전 보수 및 실측조사를 착수, 7일 마루전체를 해체하던 중 건물내부를 지붕하고 있는 직경 11m30cm의 4개 기둥 가운데 하나 하단부분 70cm가량이 부식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마음 우직스럽게 밀어라

주인공을 우직스럽게 밀고 놓 그에게 되돌리고 놓 그에게 감사하면 그것은 그분인 것이다. 급하게 서두르거나 억압하는 마음을 쓰지말라. 자유스러운 가운데 유장한 마음 자세로 당찬 일을 하라. 주인공을 밀고 밀면서 살아간다. 마음이 없으면 똥똥 떨어지지 않고 마음이 없으면 두려서 놓이지도 않는다.

협찬 한마음선원 범형제회

과 민족이 다양한 현대사회의 종교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불교·기독교·힌두교 등을 통합시킨 종교단체, 웹사이트 '모든 신념'도 불교·기독교·힌두교 등을 비롯해 40여개의 신흥종교가 뒤섞인 종교 사이트다.

인터넷의 이러한 종교 사이트 경향에 대해 김중서 교수(서울대 종교학)는 "인터넷의 종교사이트는 불교·기독교·힌두교 등의 교리가 혼재된 컬트(cult, 신흥종교의 일종) 성향이 짙다"고 밝히고 "컬트적 경향은 '뉴 에이지 운동'(New Age Movement)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한다.

윤원철교수(서울대 종교학)는 "인터넷 상의 종교사이트는 최근 급속히 증가했으나 아직까지 전개 과정이 분명하지 않아 사이버 종교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며 "종교적 의의 및 의례 행위가 불가능한 사이버 공간에서 과연 신흥종교가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부처님 오신날 지방 주요 봉축 행사

Table with 5 columns: 봉축위원회, 행사명, 일시, 장소, 전화. Lists various Buddhist event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Busan, Daegu, Gyeongju, etc.

지역개발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사찰간의 갈등관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백양사(주지 지선)는 9일 남굴당 설치에 따른 국가예산 2억원을 확보했음에도 10억 1천원을 지원하지 않아 2년간 공사 중단됐다.

백양사는 96년 4월 백남도의 협조아래 2억원을 지원받아 사찰 남굴당 시범설치사업에 나서기로 하고 설계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군이 지난 4월 군비지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있다.

대구 경주 교도관 합동법회

동화사 설립전서

대구교도소불심회(회장 이무양)는 20일 대구 동화사(주지 무공) 설립전서 경주교도소불심회와 함께 교도관 합동법회를 가졌다. 대구교도소불심회는 매달 첫째 수요일 오후 7시 달성 보림사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연꽃마을에 100구좌(3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보내는 등 보살행을 펼치고 있다.

백양사 남굴당 불사과 과 마찰

백양사(주지 지선)는 9일 남굴당 설치에 따른 국가예산 2억원을 확보했음에도 10억 1천원을 지원하지 않아 2년간 공사 중단됐다. 백양사는 96년 4월 백남도의 협조아래 2억원을 지원받아 사찰 남굴당 시범설치사업에 나서기로 하고 설계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군이 지난 4월 군비지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있다.

Advertisement for 'Buddha's Dharma' (佛塔다라니) featuring a pagoda image and text about its benefits and a seminar. Includes contact info for 'Sangjiwanhui'.

Advertisement for '23rd Buddhist Ceremony' (제23기 佛敎儀式) at Haeil Buddhist University, listing dates, topic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20,000 Members' (2천만의 깨달음을) for a Buddhist newspaper, listing subscription rates and contact info.